

오늘 북 핵실험장 폐기 할 듯...취재단 오전 풍계리 도착

공동취재단, 북 제공 장비로 경도 폭발 전세계 생중계

북한이 이르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 관계자는 23일 오후 원산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4일) 일기 상황이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현지 취재진에게 정확한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다. 앞서 남측 공동취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이날 오후 성남공항을 출발, 2시 48분께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했다. 이어 원산 현지 체류 장소인 갈마호텔로 이동했다.

갈마호텔에 집결한 한국을 비롯한 5개국 취재진은 이날 오후 6시 호텔을 출발해 원산역으로 이동, 오후 7시 전후 특별열차를 타고 풍계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원산에서 풍계리에 인접한 재덕역까지는 총 416km로, 북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시속 35km 안팎 속도로 이동할 경우 12시간가량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은 이어 재덕역에서 약 21km가량 떨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까지는 차량 및 도보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재진은 휴대전화나 인터넷 접속 장비를 소지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별도로 통신 장비를 제공한다면 핵 실험장의 경도 폭발 장면을 세계로 생중계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전날까지 남측 공동취재단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날 오전 명



단을 접수하면서 남측 기자들의 방북 취재가 성사됐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은 전날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통해 원산으로 먼저 들어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고 하며 남측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에 취재를 허용할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북 가는 남측 취재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향하는 정부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남북 대화 빚장도 풀까

남 취재단 방북 접수...태도 변화 주목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의 방북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교착 국면에 빠졌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은 23일 오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격적으로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 그동안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명단 접수를 거부해오다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은 16일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맥스선더와 대영호 전 영공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남측 기자단의 핵 실험장 폐기행사 취재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러던 북한이 이날 남측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이런 태도가 남북 간 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던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

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과 북한의 남측 기자단 방북 허용을 종합해보면 남북 간에 현재의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물밑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남측은 물론 북측 역시 부담이

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연합의 맥스선더 훈련 종료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고위급회담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고위급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집단 탈북 여중업원 문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북한이 여전히 남북관계를 대미 압박을 위한 자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 선수촌 사용료 명문화

시, 2019년 4~9월 사용 등

광주시가 소송에 휘말린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문제를 교훈 삼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명문화한다.

23일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송정주공 아파트를 내년 7월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한다. 조직위는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송정주공 재건축조합과 협상을 벌였다. 선수촌 세부사용협약에 합의한 조합 측은 지난달 21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선수촌 사용협약(안)을 의결해 참석 조합원의 97%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선수촌으로 아파트를 사용한다. 사용시설은 아파트 25

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사용료는 총 분양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합원 세대수와 중도금 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선수촌 규모는 25개 동 1660 가구로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영역을 구분했다.

선수촌은 선수와 임원 4천여 명을 수용하고 미디어촌은 보도진 2000이 사용한다. 또 선수촌에는 식당·병원·피트니스센터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조직위와 조합 측은 오는 24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조직위원장, 조영택 사무총장, 진정석 조합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앞서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액수를 두고 조합 측과 2년여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야·샵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식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